

타자화와 배제로 빚어낸 '청년', 범주에 대한 성찰이 우선

1부 '청년'은 없다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nu.ac.kr

연재 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1. 청년은 없다
2. 페미니즘이라는 단절
3. 서울과 대학이라는 경계
4. 그럼에도 불구하고



#. 청년정치의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서는 현재 통용되는 청년이라는 범주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기획은 '청년정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에 대한 즉답을 유예하고 먼저 사회에 의해 청년이라는 범주가 구성된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88만원세대', '3포세대'와 'N포세대', '달관세대', '공정세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청년'을 가리키는 말로 유통돼 온 말들이다. 이처럼 다양한 세대명칭은 특정 연령집단의 특징을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이른바 '세대론'의 도구로 사용돼왔다. 이 가운데서도 '88만원세대'는 특히 주목할 만한 분기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전에도 '베이비붐세대'나 'X세대', '밀레니얼세대' 같은 세대 구분 명칭은 존재했지만 '88만원세대'의 등장 이후 쏟아져나온 청년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들의 흥수는 이전과 구분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만하다.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김선기는 저서 『청년팔이사회』(2019, 오월의봄)에서 2000년대 초반 등장한 '88만원세대론'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언론을 통해 유통된

청년세대를 가리키는 세대명칭이 적어도 30여 종에 달한다고 정리했다. 이 가운데는 '3포세대'나 '달관세대'처럼 비교적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실크세대', 'IP세대', 'C세대', 'V세대', '팬텀세대' 등 이름만으로는 뜻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것들도 다수 있다.

저자는 각종 매체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다양한 세대명칭과 이를 둘러싼 세대담론이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일정한 특징을 공유하는 '세대'라는 개념을 동원해 해석하려는 현상인 '세대주의'에 기반한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1990년대 세대사회학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됐고 당시 20대였던 1970년대생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신세대'(혹은 'X세대') 담론을 시작으로 세대주의에 입각해 청년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폭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일련의 세대명칭과 세대담론이 '청년'으로 호명되는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다분히 외부규정적인 특징을 뛴다고 지적한다. 1990년대 '신세대' 담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세대론의 특징적인 부분은 청년이라는 개념의 확장이다. 청년이라는 말이 그 전까지는 다소 문학적

이고 상대적인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된 반면 '신세대' 담론부터는 전체 인구 가운데 특정 연령집단. 혹은 출생 연도를 공유하는 집단 전체를 포함하는, 거대하고 구체적인 지시대상을 가진 개념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세대론이 유독 '청년세대'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세대 문제에 대한 탐구는 사회와 문화의 변동을 예측해보는 일과 긴밀히 연관된다"면서 "젊은 층의 현재 모습이 곧 사회의 미래상과 연동된다고 여기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결국은 청년담론의 생산과 유통은 주로 기성세대가 '청년으로 호명되는 이들'을 정의내리고 이해하는데 사용된다. 저자는 청년담론의 이런 작동방식이 청년 개개인의 고유성과 구체성을 지우고 편리하게 타자화한다고 비판한다.

사회학 연구자 조귀동의 저서 『세습 중산층사회』(2020, 생각의힘)는 청년 세대 내부의 이질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들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제목을 가진 이 책은 특정 세대의 정서적, 문화적 특질에 천착하는 경향이 있는 종래의 세대론과는 달리 현재 청년들이 체험

하는 경제적 현실에 초점을 맞춘다.

『세습중산층사회』는 오늘날 청년층 내부 분화의 핵심 지점을 일자리에서 찾는다. 현재 노동시장을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문직으로 구성된, 초임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약 10%의 '번듯한' 일자리와 여기에 속하지 못한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로 구분한다. 저자는 이 10 대 90의 구도에서 어느 쪽에 속할지 한 번 정해지면 변동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 결과는 개인의 힘으로 빼울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노동시장의 10 대 90 구도를 사전에 결정하는 요인은 교육이다.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지난해 9월 9일 직후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부정 49.6% 대 긍정 46.6%로 종합결과에서 양측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20대의 답변 결과는 오히려 부정 44.0% 대 긍정 51.8%로 30대(32.3% 대 62.3%)와 40대(45.2% 대 53.6%)와 함께 긍정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이때는 이미 세대효과보다는 정치적 진영결집이 판단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언론에서 유통된 공정담론과 실제 20대의 인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기 위해 조귀동은 한겨레21과 글로벌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20대를 경제적 계층에 따라 구분해 시행한 이 조사에서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라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상층 이상에서는 33.3%였지만 중하층과 하층에서는 18.8%, 12.5%였다. 저자는 '조국 사태' 국면에서 공정에 대한 기대가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분노한 것은 20대 전체가 아니라 대체로 경제적 중상층에 걸치는 교육·취업의 이중선별구조의 안쪽에 속한 이들이었고 선별구조 바깥에 있는 20대의 태도는 냉소나 체념에 가까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청년이라는 범주가 타자화와 배제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곧바로 청년정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청년이라는 범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년으로 호명되고 청년을 자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현실에 청년정치의 역할을 요구하는 의제들이 존재한다면 불충분한 범주는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되어야 한다.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도전 꿈에 도전하라!
당당한 자신감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2020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1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2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0년 3월 16일 ~ 6월 5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학군사관 모집안내]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6. 13.(토), 합격자 발표 : 7. 10.(금)
- 2차 면접평가 : 9. 7.(월) ~ 9. 25(월)
합격자 발표 : 10. 16.(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12. 4.(금)

학군사관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ROTC)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문의처 **지원대학 학군단**
서울 : 02-961-0085~6
국제 : 031-201-3271~4